

노래의 활용이 초등학교 영어의 운율습득에 미친 효과 연구

- 초분절음을 중심으로 -

홍경숙
송추초등학교

The Role of Songs for the Acquisition of English Prosody in Elementary School

- Centering on suprasegmentals -

Kyungsuk Hong
Songchu Elementary School

ilzuk@chol.co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using songs for the acquisition of English Prosody in elementary school. For the purpose, 8 classes were chosen to teach songs for four months, and listening tests and reading test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the effect. The result is as follows : ① The result of listening test showed that the average scores of the experimental classes were higher than those of comparative classes, and it was more effective in lower grades than in upper grades. ② In pronunciation tests, the pronunciations of experimental classes were more similar to native speaker's pronunciation than those of comparative classes in intonation, lexical stress and sentence stress. ③ Singing songs repeatedly is more important than learning many songs. It means that to give the chances to sing as many times as possible is advisable for teaching pronunciation.

I. 서론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영어교육의 목표가 되면서 이해 가능한 발음의 습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비중을 두

게 됨에 따라, 분절음보다는 초분절음 중심의 운율 습득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가는 요소임이 인식되고 있어, 발음교육도 초분절음 지도를 통한 유창성 신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래에는 영어의 강세나 리듬, 억양의 특성이 담겨있고, 많은 영어교육자들은 이러한 운율적 요소를 지도하기 위해 노래나 첵트, 5행 속요 등을 사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모국어처럼 배우듯이 반복적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발음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발음지도를 위한 노래의 활용이 영어의 운율 요소인 억양이나 강세, 리듬의 습득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밝혀, 초등학교 시기의 발음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나 아동 모두가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 가능한 영어 발음의 습득'이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음교육을 위해 수준에 맞게 선정된 노래를 지도한 실험학급과, 영어 교과서에 게재된 노래 외에는 별도의 노래 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학

급으로 나누어 노래 학습이 듣기 능력 신장과 초분절 음 습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실험 집단은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집단 상황

학년	지역	학급수 및 학생수		실험반 지도교사			
		실험반	비교반				
3	중소도시	1	35	1	36	담임	영어교육 전공
3	읍면지역	1	32	1	33	담임	지역교육청 영어강사요원
4	읍면지역	1	27	1	27	담임	영어교육 전공
4	읍면지역	1	22	1	23	담임	영어교육 경험 없음
5	특별시	1	32	1	39	교과	영어교육 전공
5	읍면지역	1	26	1	28	교과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시간강사)
6	중소도시	1	35	1	38	담임	지역교육청 영어강사요원
6	읍면지역	1	29	1	30	담임	영어교육 경험 없음
		8	238	8	254		교사 8명, 아동 492명

2. 적용 기간

적용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월간 이고, 노래 학습은 영어 수업시간을 중심으로 5~10분간 진행되었다. 그러나 배운 노래의 수보다는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 발음 습득에 도움이 되므로, 교사의 지도하에 반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갖도록 하였다.

3. 적용 자료

노래를 발음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학년 수준에 알맞은 노래를 선정하는 기준을 언어적 기준, 음악적 기준, 학습 용이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부족한 학습 시간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반영한 노래를 단가(wee sing)에서 선정하여 각 학년에 맞게 적용하였다. 지도교사들에게는 각 단원별 두 곡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4. 평가 방법 및 도구

평가는 듣기 평가와 발음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 듣기평가

듣기평가는 사전·사후로 나누어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같은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노래 선정의 폭을 넓게 제시하였으므로 노래에 맞추어 듣기평가 문항을 제작하기 어려웠으며, 3학년의 경우는 1학기 동안(16시간) 영어를 학습한 후에 실시하였으므로 평가 문항 제작에 제한이 커져, 발음 중심의 듣기평가보다는 그 동안 학습한 내용 중심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2) 발음 분석

발음분석을 위해서는 후어휘적 음운 현상, 리듬, 음절 길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하겠으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문장의 발화 시에 자연스럽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리듬 조절에

다른 음운 현상이나 음절 길이를 측정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억양과 강세를 중심으로 발음을 분석하였다. 발음 평가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맞추어 선정하였다.

가. 노래 학습 이외에 발음 습득에 영향을 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평가시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이외에 영어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선호하는 영어 학습활동 고르기에서 '노래/챗트 부르기'를 3위 이내의 선호활동으로 선택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 성적이 아주 낮은 어린이들은 발음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발음분석 대상 아동

학년	학급									
	3		4		5		6		계	
실험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실험반	1	2	1	1	1	2	1	2	4	7
비교반	2	1	1	1	1	2	1	2	5	6
계	3	3	2	2	2	4	2	4	9	13

발음 평가를 위해 한 학년에 4-5개의 문장을 선정하여 읽도록 하였으며, 교사가 읽어준 후 어는 정도 개별 연습 시간을 준 후 한글로 번역된 문장을 보면서 뜻을 생각하며 읽도록 하였다. 원어민과의 발음을 비교하기 위해 영어과 학습자료로 배워준 녹음 테이프에서 해당 문장을 녹음하여 비교 자료로 삼았다.

분석 도구는 분석대상자의 발음을 녹음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Praat를 사용하여 피치와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듣기 평가

듣기 평가는 유의도 검사를 중심으로 학년별 평가 결과를 살펴본다.

<표 3> 3학년 전체 듣기 평가 결과 (N=136)

학년	전후	집단	n	M	SD	t	p	비고
3	사전	실험	67	93.39	9.70	911	364	*
		비교	69	91.75	11.14			
	사후	실험	67	90.75	11.05	3.034	.003	
		비교	69	83.48	16.43			

3학년의 경우는 사전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실험 전의 듣기 능력은 두 집단이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있어(p<0.05) 노래의 활용이 듣기 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점수가 사전평가에서는 1.64점의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평가에서는 7.27점의 차이가 있어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4학년 전체 듣기 평가 결과(N=99)

학년	전후	집단	n	M	SD	t	p	비고
4	전체	사전	49	89.47	11.10	-0.86	932	* p<0.05 ** p<0.01
		비교	50	89.68	13.25			
	사후	실험	49	84.08	19.78			
		비교	50	76.40	18.60			

4학년의 경우는 3학년과 마찬가지로 사전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노래가 듣기능력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도 사전 평가에서는 실험반과 비교반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0.19) 사후 평가에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7.68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4학년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를 다음의 학급별 평가 결과 분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4학년 학급별 듣기 평가 결과(N=99)

학년	집단	전후	학급	n	M	SD	t	p	비고
4	C	사전	실험	27	91.59	11.59	0.43	965	* p<0.05 ** p<0.01
			비교	27	91.44	13.39			
	사후	실험	27	95.19	9.75				
		비교	27	74.44	20.25				
4	D	사전	실험	22	86.86	10.12	-2.14	832	
			비교	23	87.61	13.07			
	사후	실험	22	70.45	20.58				
		비교	23	78.70	16.60				

4학년 C 집단의 경우는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값도 사전 평가에서 실험반과 비교반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0.15), 사후평가에서는 20.74점의 격차가 있어 실험 후에 듣기 능력 신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학년 D 집단의 경우는, 실험의 초기에는 노래 활용 발음지도를 실시하였으나, 실험반의 사정으로 인하여 2개월 정도 후에는 실험에 계속 참여할 수 없었다. C 집단이나 D 집단 모두 영어 시간에 같은 교과 전담교사가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학습에 장애가 된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노래 지도는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5학년 전체 듣기 평가 결과(N=125)

학년	전후	집단	n	M	SD	t	p	비고
5	전체	사전	58	90.02	14.42	-6.20	536	* p<0.05 ** p<0.01
		비교	67	91.55	13.24			
	사후	실험	58	89.66	12.70			
		비교	67	86.57	17.11			

5학년은 전체적으로 사전·사후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전 평가의 평균 점수에서 비교반이 실험반보다 1.33점 높았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3.09점 높게 나타나 실험반의 듣기 평가 결과가 비교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6학년 전체 듣기 평가 결과(N=132)

학년	전후	학급	n	M	SD	t	p	비고
6	전체	사전	64	75.56	19.37	366	715	* p<0.05 ** p<0.01
		비교	68	74.21	22.98			
	사후	실험	64	78.91	20.01			
		비교	68	75.88	25.81			

6학년도 5학년과 마찬가지로 사전·사후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균 점수도 사전 평가보다 사후 평가에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근소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노래 활용 수업이 듣기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발음 평가

2.1 억양의 분석

억양은 읽기 자료로 제시된 문장의 음절별 피치를 조사하였다. 측정된 피치는 원어된 발화의 억양곡선과 실험반의 평균 억양 곡선, 비교반의 평균 억양 곡선으로 그래프화한 후 상호 비교하여, 어느 반의 억양곡선이 원어된 억양 곡선과 더 유사한가를 조사하였다

<표 8> 억양 분석 결과

학년	문장	분석문장	실험반	비교반
3	1	I'm hungry	○	○
	2	Wash your hands, first	×	×
	3	Stand up	○	×
	4	Do you have an eraser?	×	×
4	5	You are strong	○	○
	6	Is this your cap?	○	○
	7	Look at the beautiful flowers	○	×
	8	What time is it?	×	×
5	9	I have breakfast at eight o'clock	×	×
	10	Did you enjoy it?	○	○
	11	I'm just listening to music	×	○
	12	I played badminton with my family	×	×
6	13	What a surprise!	○	×
	14	I want to play computer games	○	○
	15	What's the problem?	×	×
	16	Would you like to join us?	○	○
	17	Let's play soccer this afternoon	○	×
			10개(58.8%)	7개(41.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억양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실험반(58.8%)이 비교반(41.1%)보다 원어된 억양과 더 유사한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노래 부르기 활동이 억양의 습득에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5학년의 경우는 오히려 비교반이 실험반보다 원어민과 더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도교사가 모두 교과전담이므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영어 교과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래부르기가 발음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강세의 분석

강세는 낱말강세와 문장 강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낱말 강세의 분석은 읽기 자료에 있는 8개의 2음절어와 7개의 3음절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2음절어는 두 음절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강세의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3음절어의 경우에는 세 음절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한 후 제 1강세가 놓인 음절을 중심으로 원어민과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였다.

<표 9> 다음절어의 강세 분석

2음절	hungry	breakfast	o'clock	misc	enjoy	problem	soccer	surprise
E1	○	○	○	○	○	×	○	○
E2	○	○	×	○	○	○	○	○
E3	○	○	○	×	○	×	×	○
C1	○	○	×	○	○	○	×	○
C2	○	○	○	○	○	○	○	○
C3		×	×	×	○	○	×	○
3음절	eraser	beautiful	listening	badminton	family	computer	afternoon	
E1	○	○	○	○	○	×	○	
E2	○	×	○	×	○	×	×	
E3	×	·	○	○	×	×	×	
C1	×	×	○	○	×	×	○	
C2	×	×	○	×	○	×	×	
C3	○	·	×	○	×	×	×	

(○은 원어민과 유사한 강세를 나타낸 경우이고 ×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다음절어의 강세는 실험반이 전체 44개의 어휘 중 30개가 원어민의 강세와 유사하여 68.2%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비교반은 43개의 경우 중 24개가 일치하여 55.8%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음절어(55% : 35%)보다는 2음절어(79.17% : 73.91%)의 일치율이 높았다.

문장강세는 개인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강세를 원어민과 비교하여 일치율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음운구나 억양구 내에서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강세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문장 강세를 분석한 결과, 전체 47개의 경우 중에서 실험반(38.29%)이 비교반(17.02%)보다 원어민과 더 유사한 문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반의 결과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58.3%, 4학년-37.5%, 5학년-25%, 6학년 33.3%로 나타나, 3학년이 가장 일치율이 높았고, 억양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5학년의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문장 강세 습득에서도 노래 부르기가 5, 6학년보다는 3, 4학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10> 문장 강세의 분석

학년	문장	실험반				통제반			
		E1	E2	E3	%	C	C'	C''	%
3	1 I'm hungry	○	×	○	58.33	×	×	×	16.67
	2 Wash your hands, first	×	×	○		×	×	×	
	3 Stand up	○	○	○		×	○	○	
4	4 Do you have an eraser?	○	×	×		×	×	×	
4	5 You are strong	×	×		37.5	×	×		25.00
	6 Is this your cap?	○	×			×	×		
	7 Look at the beautiful flowers	○	×			×	×		
	8 What time is it?	○	×			○	○		
5	9 I have breakfast at eight o'clock	○	×	○	25	×	○	×	8.33
	10 Did you enjoy it?	×	×	×		×	×	×	
	11 I'm just listening to music	○	×	×		×	×	×	
	12 I played badminton with my family	×	×	×		×	×	×	
6	13 What a surprise!	○	○		33.33	×	○	×	20.00
	14 I want to play computer games	×	○	×		×	○	×	
	15 What's the problem?	×	○	×		○	×	×	
	16 Would you like to join us?	×	×	×		×	×	×	
	17 Let's play soccer this afternoon	×	×	×		×	×	×	
					18개(38.29%)	8개(17.02%)			

또 Stand up이나 What a surprise!와 같은 짧은 문장의 강세는 비교적 바르게 나타내고 있지만, 긴 문장은 실험반이나 비교반 모두 문장 강세의 위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발음 평가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긴 문장을 한 호흡군이나 리듬군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 읽지 못하고, 중간을 끊어 읽거나 머뭇거리며 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문장 강세를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지금까지 노래부르기가 듣기 능력 신장과 초분절음의 발음 습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았다. 짧은 실험 기간이었고, 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속적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라, 실험 기간 동안에만 학년별 교수요목에 따라 지도한 것이므로 학년간의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험반과 비교반 사이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듣기와 발음 평가 모두 실험반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노래 부르기가 듣기 능력 신장과 초분절음 중심의 운율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 부르기 활동을 선호하는 집단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배운 노래의 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수라도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교과전담이 지도한 5학년의 경우에는 노래부르기가 듣기 능력 신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담임교사가 지도한 3, 4학년과 6학년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도 시간이 제한적인 교과

전담 교사보다는, 아침자습 시간, 쉬는 시간, 학습 형태를 바꾸는 시간 등을 통해 노래 부르는 시간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즉, 이 결과는 노래를 활용한 발음 학습에서 노래부르기 시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래를 많이 배우는 것보다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3. 노래부르기는 억양, 어휘 강세, 문장 강세의 습득에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억양보다는 강세의 습득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를 통한 억양의 학습이 억양 곡선으로 나타나는 소리의 높이보다는 휴지나 발음 장음화로 나타나는 의미군 단위를 익히는데 효과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은 억양구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어서, 한 발화 내에서 문장을 의미군 단위로 끊어 읽어야할 정도의 문장은 많지 않다. 발음 평가에서도 의미군 단위의 습득에 대한 결과보다는 소리의 높이에 대해 평가하였으므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습 가능성과 의사소통 기능이 가장 중복되는 부분이 강세이므로 강세 지도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한 Dalton과 Seidlhofer(1994)의 주장을 생각해볼 때, 가장 중요한 발음 학습 요소를 습득하는 데 노래가 효과적인 학습 자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억양의 분석에서는 의문문의 억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는 모두 6개의 의문문이 있는데, Is this your cap?과 Did you enjoy it?, Would you like to join us?는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바른 억양 곡선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Do you have an eraser?, What time is it?, What's the problem?은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원어민의 억양 곡선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린이들 중에는 우리말로 된 글을 읽을 경우에도 '~까'라는 글자가 나오면 문맥에 관계없이 의문문으로 생각하여 소리를 울려 읽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Wh-의문문의 경우도 물음표를 의식하여 it 나 problem을 울려 읽는 어린이들이 많다. 이는 노래 학습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wh-의문문을 지도할 때 발음 규칙을 설명해준 후 연습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기섭, "English Phrasing in Children's Folk Songs and a Use of Rhythmic Textsetting", *음성 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음성학회, 1977
- [2] 김기섭, "접어울에 의한 영어의 채구조와 음악과의 관계 설정", *말소리* 35-36, 대한음성학회, 1998.
- [3] 김재경, "EFL 환경에서의 노래와 쉐트의 접근법 및 창의적 반복에 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vol 8/1, pp. 5-35,
- [4] 손일권, "영어 노래에서의 음절과 박, 음표의 관계", *말소리* 35-36, 대한음성학회(1998).
- [5] Adams, C. *English Speech Rhythm and the Foreign Learners*, New York: Mouton Publishers 1979.
- [6] Avery, P & Ehrlich, 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7] Celce-Murcia, M., Brinton, D.M & Goodwin, J. M, *Teaching Pronunciation*, Cambridge Univ. Press, 1996,
- [8] Couper-Kuhlen, E. *English Prosody*, London : Edward Arnold Ltd. 1986.
- [9] Lems, K. "For a Song : Music Across the ESL Curriculu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TESOL, Chicago*. 1996.
- [10] McNerney, M. & Mendelsohn, D, "Suprasegmentals in the Pronunciation Class: Setting Priorities", In Avery & Ehrlich(Ed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85-196.
- [11] Moira, R, "Children's Playground Rhymes, Chants & Traditional Verse", *Primary English Notes*, No. 47. 1984
- [12] Munro, M. J. & Derwing. T. M,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45(1). pp 73-97 1995
- [13] Taylor, D S. "Non-native Speakers and the Rhythm of English", *IRAL*, vol. X VI/3, pp 219-226, 1981.
- [14] Wong, R. *Teaching Pronunciation : Focus on English Rhythm and Inton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1987.
- [15] Yamamoto, F. "English Speech Rhythm studied in Connection with British Traditional Music and Dance", *Journal of Himeji Dokkyo Univ Gaikokugakubu*. No. 9, 1996.
- [16] Yasuyo, M. "English Speech Rhythm and its Teaching to Non-native Speaker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TESOL*. 1988